

사·부·대·중

제자리 지키기



최원섭
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법당에 앉을 때 법람에 따라 정해진 자리가 있다는 말을 처음 전해들고서는 그 보이지 않는 질서에 경이롭기까지 했던 기억이 있다. 아무런 경계도 없이 멍그런 법당에도 문쪽과 안쪽의 차이를 두고 다시 앞쪽과 뒤쪽의 구별을 두어 앉는 자리를 정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법당에

취급을 한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심터인 '나눔의 집'을 운영하던 스님의 불미스런 소식은 충격 그 자체이다. 타종교에 비해서 두드러진 사회활동이 적은 불교계 입장에서 나눔의 집은 교계의 사회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출가 수행자의 본분을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제 자리를 찾아 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나중에는 청산이나 백운이나 하는 운치 있는 단어마저도 정해진 자리를 가리키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새삼 그 멋스러움에 감탄하기도 하였다.

사실 제 자리를 찾는 일은 스님들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다. 과연 이 자리가 내가 나서야 할 자리인가, 지금 이 대목이 내가 말할 대목인가 등등을 제대로 판단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 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천방지축이라고 부르거나 '마무가네'라고 부르며 상대하지 못할 사람

지키면서 일과 운동,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일치시켜 나가야 하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종교인으로서 자세를 지키지 못하여 상호 동료애로서 아닌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자신의 올바른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책임에 앞서 그 스님은 계율상의 4바라이죄를 지었다. 바라이는 한문권에서 '단두(斷頭)'라고 번역하기도 하였다. 출가한 사람에게는 죽을 것과 같다는 말이다. 이제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자리에도 설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제 자리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된다.

여의도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심상치 않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열린 당4역회의에서 비상설 종교특위를 상설특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여성, 인권, 안보, 국제협력 등 8개 특위에 종교특위가 보태지는 것이다. 종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의 결과이다. 한나라당은 이회창 총재의 부인 한인옥씨를 중심으로 성지순례단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전통문화 진흥 정책을 통해 불교계에 어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모두 지난 1월 19일 정대스님의 이회창 총재 비판 발언의 후속조치처럼 보인다.

경전으로 보는 불교와 정치

“정치개입보다 불교이념 전파”

90년 이후 불교계는 몇 차례의 선거 과정에서 호된 흥역을 앓았다. 92년에는 의현 당시 총무원장이 김명삼씨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가 중앙승가대 학원들을 흥분시켰다. 의현스님은 학원들의 요구에 사과문을 발표하는 수모를 당했다. 지난 해 총선에서는 불교계의 유력 인사가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가 이를 보도하려는 언론에 두 손을 비벼야 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내년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움직임은 내년의 정치 행사와 무관하지 않다. 일찍

잡에서 권력과 자원을 분배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집단까지도 포함된다. 해원스님은 5권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출가자가 왕에게 예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출가하여 덕을 완전하게 수행한다면 그 깨달은 도는 육친권속이 널리 감화를 주고, 그 은총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 출가자는 설명 왕후의 위치가 아닐지라도 물론 이미 천자의 도와 같은 것으로서 크게 모든 사람들을 많이 기쁘고 있다.”

해원스님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국 동진(東晉) 때(403년) 재상인 환연은 왕에 대한 예경론 거둬들였다. 해원스님의 이 같은 견해는 초기불교의 국가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가의 기원과 성격에 대해 <구사론>에서는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대중 속에서 덕 있는 사람을 한 사람 한

말아 한다. 중생을 은밀히 보호하는 것은 왕이 제석보다도 뛰어나다.”(화엄경) 반면, 사악한 왕(권력)에 대한 태도는 매우 단호하다. 추방시키라고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면 왕이나 왕의 대재상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극도로 포악하며 자비심이 없고 오로지 타인을 핍박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구도자는 흰과 동정심으로 이익과 안락을 줄 마음을 품고 그에 머무르며 그에 의거하여 많은 죄악을 짓게 하는 왕위, 권세, 지배권에서 왕이나 권력자들을 추방시켜 버려라.”(보살지지경)

수행에 방해가 되므로 권력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경책도 나온다. “출가인은 왕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왕을 가까이 하는 사문은 모든 세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공양받지 못한다. 왕을 가까이 하는 못된 사문은 재

문을 구한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어떤 것이 윤희이고, 어떤 것이 무죄인가. 어떠한 업을 지으면 능히 행복을 부르고 모든 악에서 멀리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이미 틀은 바가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여 끝까지 수행한다.” 물론, 경전의 가르침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정천구 영산대총장(정치학)은 “불교가 정치에 대해 갖는 관점은 참여적이면서도 갈등을 순화하는 이상적인 정치문화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불교교단은 오늘날의 정치제도, 사회제도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 형태의

내년 선거 앞두고 불심잡기 물밑작업 정치인들 교계발길

이 ‘불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예전과 다른 모습이다. 경전에서는 불교와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거센 바람 앞에 우리의 모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곧 경전이다. 나아가 정치에 대한 불교의 지도적 위치를 찾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불교와 정치의 관계를 얘기할 때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인용하는 관용어가 있다. “출가인의 법은 국왕에게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법망경>의 가르침이다. 이후 이 가르침은 중국으로 들어가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이라는 저술로 정리된다. 여기에서의 왕자란 권력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정치의 정

‘사문은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 초기불교의 교훈

물을 바라며, 성이나 마을 혹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항상 재물을 구하며 만족할 줄 모른다. 만일 재물을 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무리지어 임금에 가까이 하면 좌선과 득정에 방해된다. 이와 같은 비구는 발심하여 해탈의 길을 가려고 할지라도 도리어 열매임의 길 속에 들어간다. 이때문에 비구는 왕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정법염처경) 그러나 찾아와 법을 청하는 권력자를 멀리 하지 않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왕들로부터 공양을 받았으며 법을 설했다. <불소행전>에서는 왕에게 수행자의 처소를 찾아 예경하고 법을 구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정치에 대한 불교의 지도적 위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예경하고 자

불교 대사회 역할 부처님 가르침으로 화합정치 길 제시

모범을 제시하는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즉, 불교 각 종단의 민주적 자율적 능동적 운영과 사부대중의 화합은 불교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의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발전을 위한 범례로 제시된다는 데 보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정 총장은 또 “불교가 집단으로서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교이념의 강력한 사회 전파 운동을 통해 정치 세계의 이기심과 투쟁심을 완화, 해탈시키고 화합의 정치, 청정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서 이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목탁소리

또 한번 무너진 감은사람

권형진 (취재2부 기자)

국보 112호인 경북 경주시 감은사터 삼층석탑의 동탑을 둘러싼 말쑥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해체복원한 지 5년도 되지 않아 부실 복원으로 몸체가 내려앉더니, 이제는 또 96년 해체복원 과정에서 김명삼 전 대통령과 김영수 전 문화체육부장관의 치적을 칭송한 수리기를 원래 수리기 대신 바꿔치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이 커지자 문화재청은 부라부라 보도자료를 통해 “예로부터 중요한 건물을 신축하거나 수리할 경우 수리기에 통치권자 치적을 포함하는 것은 관례”라며 이 과정에서 “외부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알려진 사실은 이와 다르다. 원래 수리기에는 복원 이유와 사리할 발굴·봉안 경위 등이 새겨져 있었을 뿐 김명삼 전 대통령과 김영수 전 문화부장관의 치적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수리기를 사리함과 함께 탑 몸체 안에 넣는 봉안식을 열기로 한 전날 뚜렷한 이유 없이 원래 수리기가 다른 곳으로 실려갔고, 닷새 뒤 김 전 대통령 등의 치적을 새겨 넣은 새 수리기가 도착했

다는 것이다.

감은사가 어떤 절인가. 삼국 통일을 이룬 문무왕이, 내가 죽은 뒤 화장해 동해에 뿌리던 용이 되어 왜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호국 전설이 서린 곳이다. 그 탑은 또 어떤가. 통일신라시대 삼층석탑의 원형으로 평가되는 대표적 문화유산이다.

동탑 안에서는 우리 나라의 사리장치가운데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사리장치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은 자신의 상을 만들어 경배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부처님 입멸 후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탑을 통해 그 가르침을 새겼다고 한다.

정책담당자들은 탑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을까. 문화재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치기 어린 발상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하긴 문화와 체육을 같은 범주에 넣은(문화체육부), ‘문화’ 하면 으레 관광을 떠올리는(문화관광부) 정책담당자들에게 이런 상식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인지도 모르겠다.



한국불교연구원

한국불교연구원 서울구도회 법회 안내

-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장소 : 한국불교연구원 서울구도회 법당(강남구 개포3동 주공5단지 Apt.)
- 내용 :

첫째주 - 정병조 박사의 육조단경 강좌	둘째주 - 권기중 박사의 아함경 이야기
셋째주 - 인환 스님의 선불교 산책	넷째주 - 김상현 박사의 한국불교사상사

이 기쁜 만남... 불교사상강좌

매년 2회에 걸쳐 시행하는 금번 강좌를 통해서 불교의 정수를 직접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자 : 2월 26일(월) - 28일(수)
- 시간 : 오전 10시 30분 - 12시
- 장소 : 한국불교연구원 서울구도회 법당
- 주제 : 불교란 무엇인가?
- 강사 : 정병조 박사(본원 원장, 동국대 교수)

지성불교, 생활불교의 산실...원효학당 2001학년도 신입생 모집

- 모집과정 : 동장과정 00명
- 모집기한 : 2001년 3월말
- 강의과목 :

사기열전(진성규 교수·중앙대)	화엄경심지품(송찬우 교수·중앙승가대)
무량수경(정병조 교수·본원 원장)	법화경(권탄준 교수·동국대)

☎ (02)3411-6167~8 / 지하철3호선 대치역, 63번 버스 이용 개포동 5단지, 개포빌딩 6층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건전지용 초·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 간격

- 25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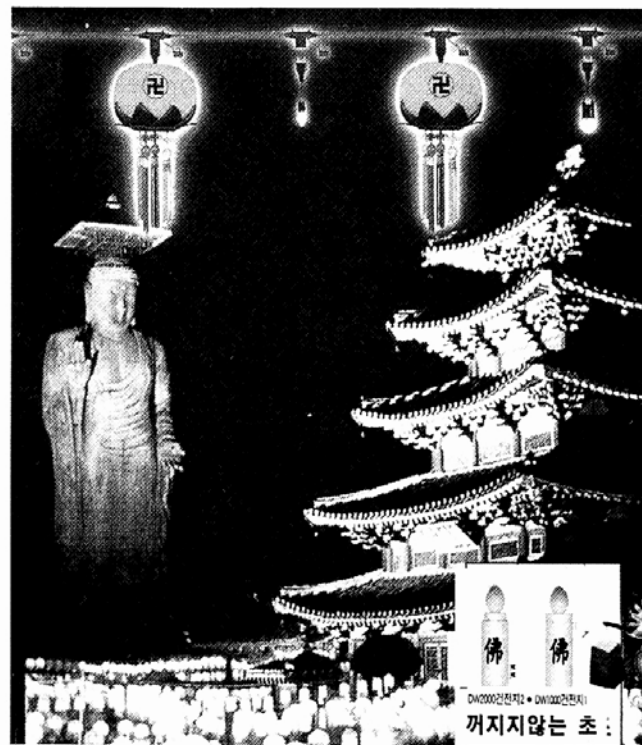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순정품)
- ▶ 종류 : 3W, 5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할라멘트가 6배(특 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인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탐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등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 582-6235-6 무료전화 (080) 5826-236 평생전화 (0502) 582-6235-6 401-07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 A/S (032) 583-4023 FAX (032) 571-9470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 (031) 986-0277~8